# 참 법문 알려면 실교에 들어와야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⑫ 핵심법문 일불승

비유하건대 5백 유순이나 되는 험악하고 무서운 길이 있고 이 길을 지나 진귀한 보배가 많은 곳이 있었다. 한 도사가 이 길의 사정을 잘 알고 여러 사람 이끌고 인도하여 이 험난한 길을 지나 보배가 있는 곳을 가는 중이었다. 3백 유순쯤 이르렀을 때 따라오던 무리들이 싫증을 내어 도사에게 말했다.

"우리는 몹시 지치고 피곤하여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니 이제 그만 돌아갈까 합니다."

도사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이 사람들아, 어찌 큰 보배를 포기하고 돌아가려 하는가?"

도사가 신통력으로 한 성(城)을 만들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라. 여기 좋은 성이 있으니 이 성에 들어간다면 더없이 편안하며, 마음대로 쉴 수 있다."

이때 지친 사람들이 크게 기뻐해 일찍이 없던 일이라 감탄하고, '우리 이제 걱정 없이 마음껏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됐노라.' 하여 신통으로 만든 성에 들어가 이미 험한 길을 벗어나 편안함을 얻었다 생각하며,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느니라. 그때 도사는 이 사람들이 이미 휴식을 취했기에 다시 싫증이 없어진 것을 알고, 곧 화성을 없애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 다시 가자. 보배 있는 곳 가까우니라. 먼저 있던 큰 성은 내가 신통력으로 만든 바이니, 그대들을 잠시 쉬게 하기 위함이었느니라."

"비구들이여, 여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제 그대들을 위해 대도사(大導師)가 되어 온갖 번뇌의 그 험난한 길이 멀고멀어, 응당 가고 벗어나게 해야 할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중생이 일불승(一佛乘)만 듣는다면 부처님을 뵈려고 하지 않으며 가까이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곧 생각하기를 '부처의 길이 너무 머니 오래오래 고생하여야 가게 되리라.' 하고 가지 않고 물러나려 할 것이므로, 부처가 이들의 마음이 약하고 열등한 것을 알아, 방편으로 중도에서 쉬도록 해 주기 위해 두 가지 열반을 설하느니라."

'화성유품'의 중요한 내용인 이 대목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보배가 있는 곳으로 가던 길잡이(導師)가 도중에 대중이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려 하자 신통력으로 방편을 써서 성(城)을 하나 만든다. 이 성이 이 품의 이름인 화성(化城)이다. 지친 사람들을 쉬게 하고 피로를 풀도록 하여 보배 있는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보배가 있는 곳(寶所)'은 〈법화경〉의 핵심 법문인 일불승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 일불승은 멀고 험난한 과정을 지나야 하므로 중생들이 포기할까봐 부처님이 우선 소승의 열반을 먼저 설했으나 이는 진정한 열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가지 열반이란 유여열반(有餘涅槃)과 무여열반(無餘涅槃)이다. 유여열반이란 번뇌는 끊었으나 과거 숙생의 업보가 남아 육신이 유위법(有爲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로 성문들의 열반을 두고 말해온 것으로, 아직 완전한 열반을 증득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이 있다는 뜻으로 '유여'라는 말을 붙였다. 무여열반은 완전한 열반이란 뜻으로 번뇌도 끊어지고 육신의 장애가 생기지 않는 열반으로 오온(五蘊)이 완전히 공해진 경지를 증득하고 제법이 모두 공해진 법공(法空)의 경지를 얻은 상태의 열반을 말한다. 소승과 대승의 차이를 소승은 아공(我空)만을 증득하고 법공을 증득하지 못했다고 보며, 대승은 아공과 법공을 다 증득했다고 본다. 대승불교가 일어나고부터 소승의 열반을 '유여열반', 대승의 열반을 '무여열반'이라 하였다. 〈법화경〉에서는 소승의 열반이 화성(化城)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는 정도로 보며, 보배가 있는 곳이 일불승으로 이것이 완전한 열반이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일불승을 설하지 않고 소승법을 설한 것은 중생의 근기가 성숙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그러니 권교(權敎)의 방편설이 실교(實敎)의 참 법문이 아니니 부처님의 참된 법문을 알기 위해서는 실교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화경〉의 대의를 회권입실(會權入實)이라고도 하였다. 이는 곧 삼승법(三乘法)을 회통(會通)하여 일불승에 돌아간다는 회삼승귀일승(會三乘歸一乘)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 위한 규범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⑫ 출가계

칠중계(七衆戒) 가운데 출가자가 지켜야 하는 계는 출가자의 연령과 성별에 의해 구별된다. 즉, 사미와 사미니는 10계(戒), 식차마나는 6법계(法戒),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계를 지켜야 한다. 언뜻 보기에 출가자일지라도 사미와 사미니에게는 재가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종교적 실천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10계는 8재계가 확장된 것으로 내용상 열 번째인 '금이나 은을 받지 않겠다[離金銀寶物]'는 항목만 추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8재계는 재일(齋日)에만 지키는 주기적인 계이지만, 10계는 늘 지켜야 하는 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범행(梵行)의 실천은 재가자에게는 권고사항이지만, 출가자에게는 종교적 의무이다. 재가자에게는 가족생활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지만, 출가자에게는 감각적 행위를 절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불교교단의 예비 구성원인 사미와 사미니에게는 가족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감각적 행위에 탐닉하지 않는 독신생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교단의 정식 구성원인 비구와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를 구족계라고도 하는데, 사실 〈율장(律藏)〉에 따라 계조(戒條)의 차이가 있다. 비구와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를 각각 〈팔리율〉에서는 227계와 311계, 〈사분율〉에서는 250계와 348계, 〈오분율〉에서는 251계와 380계, 〈십송율〉에서는 263계와 354계, 〈마하승기율〉에서는 218계와 290계, 〈근본설일체유부율〉에서는 249계와 358계로 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벌칙이 명시되어 있다.

재가자와 달리 출가자는 세간과 분리된 공간인 승원(僧院)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 이런 까닭에 출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제정될 수밖에 없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制裁)를 받는다. 벌칙은 여덟 종류로 나누어진다. ①바라이법(波羅夷法)은 교단에서 추방하는 것이다. ②승잔법(僧殘法)은 엿새 동안 따로 거주한 후에 스무 명의 승가(僧伽) 앞에서 참회하는 것이다. ③부정법(不定法)은 신뢰할 만한 신자의 증언을 기다려 벌칙이 결정되는 것이다. ④사타법(捨墮法)은 사유물의 위반에 관한 것으로, 사유물은 교단에 몰수되고 세 명의 승려 앞에서 참회하는 것이다. ⑤단타법(單墮法)은 세 명의 승려 앞에서 참회하는 것이다. ⑥회과법(悔過法)은 한 명의 상좌(上座) 앞에서 참회하는 것이다. ⑦중학법(衆學法)은 한 사람의 승려 앞에서, 혹은 마음속으로 참회하는 것이다. ⑧멸쟁법(滅諍法)은 교단에 다툼을 일으킬 경우의 해결법이다.

또 죄의 성격이나 동기에 따라 다섯 종류로 나누거나 일곱 종류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것을 '오편칠취(五篇七聚)'라고 한다. 오편(五篇)은 바라이(波羅夷), 승잔(僧殘), 바일제(波逸提),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 돌길라(突吉羅)이다. 이 가운데 바일제는 사타법과 단타법에 해당하고, 바라제제사니는 회과법에 해당하고, 돌길라는 중학법에 해당한다. 칠취(七聚)는 오편에 투란차(偸蘭遮)를 더하고, 돌길라를 행위의 종류에 따라 악작(惡作)과 악설(惡說)로 나눈 것이다. 새로 추가된 투란차는 불도(佛道)의 수행을 막는 것으로서 바라이와 승잔을 범하기 직전의 죄이다.

특히 중학법은 〈사분율〉과 〈오분율〉에서 백 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서 백중학(百衆學)이라고 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경계하는 것이다. 또 칠취에서는 악작과 악설로 나누었듯이, 늘 신업(身業)과 구업(口業)으로 인한 잘못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출가계는 독신의 출가자가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규범으로 볼 수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⑫ 결혼관습

## 변형돼 묘사된 석가족 '사촌혼'

마하방사(Māhavaṃsa)에 그려지는 싯다르타의 집안 관계는 특이하면서도 전형적이다. 그의 아버지 숫도다나(Suddhodana)의 경우를 보면, 그는 아버지 시하하누(Sihahanu)의 여동생의 딸들, 즉 고모의 두 딸과 결혼한다. 이들이 마야(Māyā)와 빠자빠띠(Pajāpatī)이다. 그런데, 싯다르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싯다르타는 고모의 딸이었던 밧다깟자나(Bhaddakaccānā) 즉 야소다라와 결혼한다. 여자 측에서 보자면, 외사촌과 결혼하는 것이고, 남자 측에서 보자면, 사촌과 결혼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인류학에서는 교차사촌혼(cross-cousin marriage)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결혼형태는 남인도 지역 특히 따밀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현재까지 이어진다.

그렇다면 정말 싯다르타 당시 북인도에서 이러한 형태의 사촌간 결혼이 존재했을까. 그의 아버지 숫도다나와 싯다르타는 사촌과 결혼한 것이 사실일까. 이에 대해 20세기 초반의 학자들은 불경의 내용들을 거의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채, 샤카족들은 사촌간의 결혼관습이 있었노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씨(姓氏)가 같게 보이는 이유도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마하방사 뿐만 아니라 자따까에도 이러한 결혼형태는 똑같이 그려진다. 어머니 쪽의 삼촌 딸과 결혼하거나, 아버지 쪽의 고모 아들과 결혼하거나 하는 관습이 매우 흔하게 묘사된다. 예를 들어, 아사세(Ajātasattu)왕의 경우를 보자. 그는 아버지 빔비사라왕과 코살라데비 사이에서 태어난다. 아사세왕은 후에 성장하여 아버지 빔비사라 왕을 살해하는데, 그 슬픔으로 어머니 코살라데비까지 죽게 된다. 그러자, 코살라데비의 오빠였던 파세나디 왕은 결혼지참금으로 빔비사라왕에게 주었던 도시 바라나시(Kāsi)를 다시 회수한다. 이 문제로 외삼촌과 조카 사이였던 파세나디 왕과 아사세 왕은 전쟁에 돌입한다. 몇 번의 전쟁에서 패배한 파세나디 왕은 한 불교 장로의 우연한 도움으로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는 아사세 왕을 생포하게 되고, 그를 용서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딸 바지라(Vajirā)를 내어주고 결혼까지 시킨다. 즉 아사세 왕도 외삼촌의 딸과 결혼한 경우였다. 아사세 왕의 경우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베산타라 자따까(Vessantara Jātaka)에 등장하는 주인공 베산타라(Vessantara)와 마디(Maddī)도 마찬가지다. 부인 마디는 베산타라의 외사촌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만으로 고대 북인도에서 교차사촌혼이 유행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다. 실제로 빨리어 문헌이 아니라, 불교 등장 전후의 다른 산스크리트 문헌을 보면 사촌간의 결혼은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베다 문헌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후대의 율법서에서는 사촌간의 결혼이 금지되기도 한다. 인도-아리아인들의 결혼은 같은 씨족(gotra)간의 결혼을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이다. 후대 바가바뜨 뿌라나(Bhagavat purāṇa)처럼 신화적 문헌 속에 사촌간의 결혼이 묘사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남인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왜 유독 빨리어 경전 속에는 이러한 사촌간의 결혼이 빈번히 그려지고 있는 것일까. 교차사촌혼이 묘사되는 빨리어 문헌들은 대체로 빨리어 주석서이거나 자따까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이 문헌들은 싯다르타가 살던 북인도의 관습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문헌들은 남인도의 결혼관습을 그리고 있다. 즉, 남부에서 제작된 이야기라는 뜻이다. 마하방사에 그려지고 있는 싯다르타 집안의 사촌혼 관습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싯다르타 가문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남인도나 스리랑카의 전통적인 결혼관습을 은연중에 보여준다. 반대의 예를 들자면, 아리야수라(Āryaśūra)가 쓴 동일한 산스크리트 베산타라 자따까에는 베산타라와 마디가 사촌간의 결혼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교차사촌혼은 대표적인 드라비다(Dravida)인들의 결혼형태로 주로 지금의 타밀(Tamil) 지역이나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의 전형적인 관습이다. 남방지역 불교인들의 손을 거쳐 후대 빨리어 문헌이 작성되면서 북인도의 결혼관습이 변형되어 묘사된 것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지구환경도 살리고 살림비용도 절감하는

em 친환경세제 EM 선물세트

EM이란? Effective Micro-organisms(유용 미생물군)의 약자. 일본 류큐 대학의 히가테루오 교수가 개발했으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 세균 등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 배양한 것.

기대 이상의 세척력 우리에게 유익한 미생물로 이뤄진 EM원액(Effective Micro-organisms 유용 미생물군)을 발효시키면 환경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친환경 세제

종합 사각선물 A 세트



● EM발효 덴탈케어 플러스 ● EM발효 안심주방세제 ● EM고농축 세탁세제 ● EM비누세트(미네랄비누, 쪽비누, 두발&바디워시 비누) ● 스킨비바(미용비누) ● EM주방비누 ● EM세탁비누 / 49,000원

종합 사각선물 B 세트



● EM발효 덴탈케어 플러스 ● EM발효 안심주방세제 ● EM고농축 세탁세제 ● EM비누세트(미네랄비누, 쪽비누, 두발&바디워시 비누) ● 스킨비바(미용비누) ● EM주방비누 ● EM세탁비누 ● EM쌀뜨물 발효액 / 40,000원

EM스마트 발효기




EM(유용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쌀뜨물을 계절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발효할 수 있습니다. 200L 발효기(48만원) /120L발효기(40만원) / 30L발효기(32만원) ＊부가세별도




EM원액 : 1박스(1L×15EA) 120,000원

판매처 : 마하몰 02-732-1520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